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권 4호 (2014년 12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목 차

중년기 성격과 노화불안: 성격 5요인, 생성감과 노화불안의 관계	김민희 · 신순옥
중년기 부부의 배려 정도와 결혼만족도 및 삶의 만족감과의 관계	김승주 · 정영숙
과거와 미래사건의 순서에 대한 추론의 발달과 집행기능	윤주인 · 박영신
가리키기 행동 이해에 기반을 둔 12개월 영아들의 행동 목표 예측 능력	김은영 · 송현주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최나래 · 신나나
대학신입생의 자기존중감, 자기자비와 대처전략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정영숙 · 김수빈
발달 초기 학습된 단어의 유지에 있어 타인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할	정은주 · 최영은

한국심리학회지

발 달

제 27 권 제 4 호 / 2014. 12

중년기 성격과 노화불안: 성격 5요인, 생성감과 노화불안의 관계	김민희 · 신순옥 / 1
중년기 부부의 배려 정도와 결혼만족도 및 삶의 만족감과의 관계	김승주 · 정영숙 / 27
과거와 미래사건의 순서에 대한 추론의 발달과 집행기능	윤주인 · 박영신 / 51
가리키기 행동 이해에 기반을 둔 12개월 영아들의 행동 목표 예측 능력	김은영 · 송현주 / 73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최나래 · 신나나 / 91
대학신입생의 자기존중감, 자기자비와 대처전략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정영숙 · 김수빈 / 117
발달 초기 학습된 단어의 유지에 있어 타인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할	정은주 · 최영은 / 139

한국발달심리학회

중년기 성격과 노화불안: 성격 5요인, 생성감과 노화불안의 관계

김 민 회[†]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신 순 옥

광운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성인의 성격과 노화불안의 관계, 구체적으로 성격 5요인, 생성감과 노화불안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중년기 성인 410명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변인, 성격 5요인, 생성감, 노화불안에 대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노화불안에 대한 성격 5요인과 생성감의 상대적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격 5요인이 노화불안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인구학적 변인과 성격 5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생성감의 설명력이 유의미하였다. 예측 변인들 중 생성감의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격 5요인 중에서는 신경증성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중년기 노화불안 감소를 위한 개입방안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주요어 : 중년기, 성격 5요인, 생성감, 노화불안

[†] 교신저자: 김민회,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66
Tel: 02-584-6851, E-mail: pseudo@kcg.ac.kr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년기까지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연령 증가와 함께 감퇴와 상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가 쉽지 않다(장휘숙, 2007).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미래에 닥칠 자신의 노년기에 대해 걱정과 염려를 더 많이 하게 되었다(Lasher & Faulkender, 1993). 실제로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의 89%가 자신의 노후에 대해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 보건복지부). 노화는 권력의 상실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고가 만연되어 있는 현대의 사회문화 환경에서 노화는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김숙남, 최순옥, 신경일, 이정희, 2008). 더구나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는 노화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장익, 2012).

노년 연구자들은 노화불안을 노년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지각하는 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미래에 대한 걱정, 나이 들어가는 것에 두려움으로 정의하였다(Cummings, Kropf, & DeWeaver, 2000; Eglit, 2004; Lynch, 2000). 노화불안은 노화에 대한 태도의 한 측면으로 인생의 선택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선택은 이후 노화의 질과 노년기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Lasher et al., 1993). 예를 들어, 큰 노화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에서 부정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큰 반면,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성공적 노화의 기회를 증가시킬 인생 선택들을 더 많이 한다(Harris & Dollinger, 2003). 따라서 노화불안을 적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성공적인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처럼 노화불안은 노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므로(장익, 2012),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구성원들의 성공적 노화와 노후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노화불안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노화불안은 오랫동안 연구자들에 의해 무시되어져왔는데, 정신 건강과 정서 분야에서도 연구자들은 우울, 일반화된 불안, 분노에 대해서는 조사해왔지만(Kessler, McGonagle, Swartz, Blazer, & Nelson, 1993; Mirowsky & Ross, 1992; Schieman, 1999), 노화불안의 주제에 관해서는 거의 연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이르러 Lasher 등(1993)과 Lynch(2000)에 의해 노화불안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중년기 노화불안

노화불안은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오해뿐 아니라 이치에 맞는 걱정에도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중년기에 가장 두드러진다. 어떤 연구자들은 사춘기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도 자신의 노화에 대해 상당히 높고 안정적인 수준의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지만(Doka, 1986; Lasher et al., 1993),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노화불안이 중년기인 40대에서 50대(Kruger, 1994) 혹은 50-64세(Ross & Drentea, 1998)에 절정에 달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중년이 되면 실제로 생활 속에서 노화의 증상들을 경험하게 되므로 젊은 성인에 비해 노화불안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데(최순옥, 김숙남, 신경일, 이정희, 2008; Neikrug, 2003), 젊음이 사라져가는 것을 애도하는 심정과 생명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은 중년기 위기의 핵심이기도 하다(김애순,

1993). 뿐만 아니라 중년기 성인은 실제 노인들보다도 나이드는 것에 대해 더 부정적이며 불안감을 더 크게 느낀다(Barrett & Robbins, 2008; Lynch, 2000). 이러한 결과에 대해 노화불안 연구자들은 이미 노인이 된 성인들은 나이드는 것에 대해 다소 낙관적이 되는 반면, 중년기 성인은 노년기를 앞으로 당면할 도전과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서순림, 최희정, 2013). 이는 실제로 경험하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예상하는 사건에 대해서 불안이 더 크다는 주장과도 일치한다(Yan, Silversetin, & Wilber, 2011). 노화불안의 초기 연구자인 Lynch(2000)도 젊은 성인에게 노화는 큰 의미나 중요성을 가진 개념이 아니므로 노화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일시적이고 변화 가능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젊은 성인기보다는 중년기의 노화불안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현재의 중년세대들은 의학의 발달로 역사상 유례없는 긴 노년기를 보내게 될 것이고, 가치관과 가족 구조의 변화로 노년기에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들의 노화불안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년기 노화불안은 중년기 삶의 질과 이후 노년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중년기 노화불안은 우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Flint & Rafat, 2002; Ho, Chan, Yip, Cheng, Yi, & Chan, 1999; 김순이, 이정인, 2007), 성공적 노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강해자, 2012). 따라서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중년기 노화불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홍금희, 2014).

그런데 중년기 성인들의 노화불안에는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노화에 대해 낮거나 중간 수준의 불안을 보고하는 반

면,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고한다. 즉 어떤 사람들은 노화와 관련된 변화에 잘 적응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노화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무엇이 노화 과정에 대한 불안과 적응에 그와 같은 개인차를 가져오는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성격에 주목하였다. 성격은 개인의 삶에 방향과 패턴을 부여하는 인지, 감정, 행동의 복합적 조직으로(Pervin, 1996), 환경에 대한 개인의 적응을 결정하기 때문이다(Caspi, 1998; McCrae & Costa, 1997). 성인기 성격 발달을 연구하는 이론가들과 연구자들은 두 개의 관점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첫째, 성격의 기질적 관점에서는 중년기 적응이 외향성, 신경증 성향, 성실성, 개방성, 우호성과 같은 성격특질의 기능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McCrae & Costa, 2008; Roberts, Wood, & Caspi, 2008). 즉 좋은 성격특질은 좋은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하고 수반한다는 것이다. 둘째, 성격의 발달적 관점에서는 중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은 중년기의 생성감 과제와 같은 발달적 요구와 과제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Erikson, 1964; McAdams & De St, Aubin, 1992; Peterson, 2006). 즉 단계-특정적인 발달 과제의 성공적 해결 혹은 참여가 좋은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언한다는 것이다.

성격 5요인과 노화불안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성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Wullschleger, Lund, Caserta, & Wright, 1997), 비록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영향을 받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황에 대한 반응

은 개인의 성격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성격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이론 중 연구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것은 성격 5요인 이론이다(박일경, 이상민, 최보영, Yuanying Jin, 이자영, 2010). 성격 5요인 이론가들은 5요인 성격특질은 본질적으로 환경적 영향에 관계없이 내재적 발달과정을 따르는 내생적 성향이라고 주장한다(Costa & McCrae, 1992; McCrae, et al., 2008).

5요인 성격특질은 인생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신경증성향 특질은 일생을 걸쳐 심리적 적응의 개인차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McCrae & Costa, 1990). 높은 신경증성향은 비효율적인 대처 기술과 인생 불만족과 관련이 있고(Costa & McCrae, 1980; McCrae & Costa, 1986), 아동기 동안의 높은 신경증성향과 낮은 우호성은 이후의 관계 문제, 경력 문제와 관련이 있다(Caspi, Elder, & Bem, 1987).

성격특질과 삶의 다양한 결과와의 관련성은 중년기에도 지속된다. Bosworth, Bastian, Rimer와 Siegler (2003)의 연구에서 성격특질이 상이한 여성들은 폐경에 대한 심리적 증상과 신경증상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 신경증성향이 높은 여성들은 자신들의 갱년기 전환에 대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도 중년기 심리적 안녕감과 성격특질은 관련이 있었는데 중년기에 신경증 성향이 낮은 사람은 자기 수용, 자기-가치감이 낮았으며(Siegler & Brummett, 2000), 외향성, 성실성도 중년기 심리적 안녕감과 높은 관련성이 있었다. McCrae 등(1990)의 성인기 종단연구에서도 “중년기 위기”를 경험하는 개인은 10년 전부터 높은 신경증성향을 보였다.

이처럼 성격특질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지난 20년 동안

축적되어왔지만 어떤 영역은 많이 연구되지 않았는데(Siegler et al., 2000), 그 중 하나가 노화와 관련된 영역이다. 하지만 성격특질의 개인차는 노화불안의 차이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성격 특질은 생물학적인 기초를 가진(McCrae, 2007; McCrae et al., 2008), 특징하고 일관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사고하고 느끼는 경향성의 개인차이다(Caspi, 1998). 따라서 5요인 성격특질은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고 그러한 평가는 다시 정서적 반응을 결정하고 그 결과 삶에 영향을 미친다(Schneider, 2004). 또한 성격 특질은 정서 조절과도 관련이 있는데 사용하는 정서조절 전략의 차이는 정서적 경험으로 이어진다(Bryant, 2003; Gohm, 2003; Kokkonen & Pulkkinen, 2001).

신경증 성향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반응을 강렬하게 하고 그 결과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더 크다(Suls & Martin, 2005). Revelle와 Scherer(2009)는 외향성과 신경증 성향이 환경에 대한 반응과 부정적 정서 상태의 개인차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Sorić, Penezić와 Burić(2013)의 연구에서는 신경증 성향이 높은 사람이 모호한 상황을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불안과 분노 같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빈번하게 경험하고,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신경증 성향은 노화 사건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 결과 노화불안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외향성은 자극에 대한 에너지 넘치는 접근, 긍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으므로 괴로움을 느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Shewchuk, Elliot, MacNair -Semands, & Harkins,

1999).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다양함, 새로움, 정신적 경험적 삶에서의 변화 등을 의미하므로 노화에 대한 고통스러운 경험이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덜 공포스럽게 다가올 것인데, 한 연구에서 개방성은 노화의 자기 지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nada, Stephan, Caudroit, & Jaconelli, 2013; Stephan, Demulier, & Terracciano, 2012). 즉 개방적인 사람일수록 자신의 주관적 나이를 더 젊다고 지각하였다. 성실성은 강한 목적감, 자기 통제감과 관련되며 이것은 성실한 사람들의 안녕감을 높인다(Shewchuk et al., 1999). 뿐만 아니라 높은 성실성은 부정적인 사건을 더 유쾌하고, 자신의 통제 안에 있고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보게 만든다(Tong, Bishop, Enkelmann, Why, Diong, Ang, & Khader, 2006). 우호성은 동일한 상황에서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DeNeve & Cooper, 1998), 우호성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이고 변화에 순응적이라(John, 1990)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볼 때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개방성은 노화불안과 부적의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격 5요인이 삶의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인식한 몇몇 연구자들은 성격 5요인 모델을 성격의 개인차와 노화불안 간 관계를 탐색할 수 있는 유용한 틀로 생각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Harris 등(200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신경증성향과 우호성이 노화불안에 대한 유의미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신경증성향이 높을수록 그리고 우호성이 낮을수록 노화불안이 높았다. 또한 국내에서 대학생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휘숙(2012)의 연구에서는 높은 신경증성향과 낮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대학생과 노인의

노화불안을 예측하는 유의한 성격특질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국내외를 통틀어 지금까지 성격 5요인의 개인차와 노화불안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경험적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arris 등(2003)의 연구와 Gao(2009)의 연구, 대학생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장휘숙(2012)의 연구가 전부이다. 이들 연구들은 대학생 혹은 대학생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노화불안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중년기를 대상으로 성격 5요인과 노화불안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성격 5요인의 개인차와 노화불안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기질적 성격 5요인이 노화불안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노화불안의 상대적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노화불안 변량의 모든 부분이 이들 성격특질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데, 성격특질은 노화불안의 하위요인 각각에 대해 약 7-15%정도의 설명력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노화불안을 설명하는 추가적인 성격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Harris et al., 2003), 중년기 성인의 경우 그 중 하나가 생성감이다.

중년기 생성감과 노화불안

Erikson(1963)은 중년기의 핵심적인 심리사회적 발달 과제로 생성감을 강조하였다. Erikson에 따르면 중년기의 핵심적인 발달 과업은 양육, 가르침, 멘토링 그리고 미래를 위해 자신의 긍정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광범위한 행위들을 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위한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이다(McAdams & de St. Aubin, 1998). 따라서 중년기의 생성감이란 다

음 세대를 발전시키고 이끌기 위한 관심을 의미하며, 가족, 사회, 제도를 돌보고 문화적 전통을 유지, 계승하며, 후세대에 유산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중년기에 생성감을 실현한 결과로 “돌봄”의 덕목을 획득하게 되고, 이는 노년기까지 이어져 노인으로써 하염없이 자신이 쓸모 있고 중요한 사람이며 무엇인가 공헌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특징이다(이은희, 김금운, 한규석, 주리애, 2004).

많은 연구들은 생성감의 다양한 지표들이 중년기의 자기 보고된 안녕감을 포함한 전반적인 심리사회적 적응과 정적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Ackerman, Zuroff, & Moscovitz, 2000; de St. Aubin & McAdams, 1995; Keyes & Ryff, 1998; McAdams, Aubin, & Logan, 1993; Stewart & Ostrove, 1998; Westermeyer, 2004). 국내의 연구에서도 생성감은 삶의 만족, 심리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정신, 2005; 오경석, 2002). 또한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결과에서는 중년기의 생성감은 성공적 노화에 이르는 중요한 요소로서 노년기 삶의 만족, 심리적 안녕감, 자존감 같은 긍정적 태도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Vaillant, 2002).

생성감 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생성감 욕구는 초기 성인기에 이미 형성되지만 생성감에 대한 확신과 능력은 중년기에 절정에 이르고, 생성감의 실현과 성취는 중년기 이후로 갈수록 증가함을 보여준다(Peterson & Stewart, 1996; Stewart, Ostrove, & Helson, 2001; Peterson & Klohnen, 1995). 경험적 연구 결과들은 생성감과 나이의 관계 즉, 청소년기, 젊은 성인, 중년, 노년의 생성감의 크기에 대해 복잡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중년기 성인들이 가장 생성

적인 나이임은 분명하다(Kekes et al., 1998; McAdams et al., 1993).

Erikson의 발달이론에 따르면 이전 단계의 발달 과업의 성공적 수행이 이후 발달의 성공을 이끌므로 중년기의 생성감 획득은 다음 단계인 노년기 발달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Fisher(1995)는 나이든 노동자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생성감을 가지는 것이 자신이 성공적으로 노화하고 있다는 그들 신념의 핵심임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노년기로의 순조로운 접근을 위해서는 중년기의 생성감 획득이 매우 중요하므로(장익, 2012), 중년기 생성감과 노화불안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것이다. 실제로 장익(2012), 이해련(2013), Peterson과 Duncan(2007)이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에서 중년기 생성감은 노화불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생성적인 사람은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정도의 후회를 하고 자신이 인생을 잘 살았다는 만족감을 느끼므로 생성감은 노화에 대한 걱정과 부적의 관련성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Peterson et al., 2007). 하지만 이들 선행연구들은 중년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중년기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단순히 중년기 생성감과 노화불안의 관계만을 조사하였다.

종합해보면 지금까지 중년기 성인의 성격과 노화불안의 관계를 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특히 성격의 기질적 특성인 성격 5요인과 중년기의 발달적 성격 특성인 생성감이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여성과 남성의 성격이 인구학적 특성을 넘어서서 중년기 노화불안을 설명하는가? 둘째,

기질적 관점의 성격 5요인과 발달적 관점의 생성감 중 어느 것이 노화불안을 더 잘 설명하는가? 셋째, 성격 5요인 특질 중 노화불안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가?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경기도 및 강원도에 거주하는 중년기 성인 남녀 458명이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분석에

사용된 410명 중 남자는 156명, 여자는 254명이었으며, 참여자의 연령은 만 40-64세로 평균은 48.34(5.77)세였다. 학력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58.1%였으며, 종교를 가진 참여자가 59.6%로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많았으며, 직업이 있는 참여자가 75.4%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기혼 상태라고 응답한 사람이 90.2%로 대부분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96.8%가 1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다. 소득은 월 300-400, 500-600만원으로 보고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미혼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90.2%로 가장 많았다.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자세하

표 1.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N=410)

	구분	빈도(%)	계(%)		구분	빈도(%)	계(%)
성별	남자	156명(38%)	410명(100%)	연령	40-50세	283명(69%)	410명(100%)
	여자	254명(62%)			51-64세	127명(31%)	
학력	중졸이하	11명(2.7%)	405명(98.8%)	동거 형태	혼자	7명(1.7%)	408명(99.5%)
	고졸	156명(38%)			부부	16명(3.9%)	
	대졸	195명(47.6%)			미혼자녀	370명(90.2%)	
	대학원졸	43명(10.5%)			출가자녀	2명(0.5%)	
종교	기독교	136명(33.2%)	409명(99.8%)	결혼	기타	13명(3.2%)	410명(100%)
	불교	70명(17.1%)			미혼	17명(4.1%)	
	천주교	35명(8.5%)			기혼	370명(90.2%)	
	유교	1명(0.2%)			이혼/별거	18명(4.4%)	
	기타	2명(0.5%)			사별	3명(0.7%)	
	무교	165명(40.2%)			동거	2명(0.5%)	
자녀 수	없음	9명(2.2%)	406명(99%)	소득	100만원미만	19명(4.6%)	393(95.9%)
	1명	63명(15.4%)			100-200만원	73명(17.8%)	
	2명	65명(64.6%)			200-300만원	73명(17.8%)	
	3명	62명(15.1%)			300-400만원	86명(21.0%)	
	4명	5명(1.2%)			400-500만원	84명(20.5%)	
	6명	1명(0.2%)			500-600만원	29명(7.1%)	
	9명	1명(0.2%)			600-700만원	10명(2.4%)	
직업 유무	있음	309명(75.4%)	408명(99.5%)	700-800만원	9명(2.2%)	10명(2.4%)	
	없음	99명(24.1%)		800만원이상	10명(2.4%)		

게 제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서울의 경우 조사원을 활용하여 회사, 종교기관 및 병원을 중심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설문지를 배포, 수거하였다. 경기도는 중학교 2학년 및 3학년 학생들과 고등학교 1학년 및 2학년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원하는 학생에 한하여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설문지를 작성해 오게 하였다. 강원도는 대학교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원하는 학생에 한하여 가정에서 부모를 포함한 중년기 성인으로부터 설문지를 작성해 오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자는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였고, 자기 보고식 응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시력문제 등)에게는 조사원이 일대일 개별 면접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을 제공하였다. 설문지 작성을 보조한 학생들과 설문지 조사를 맡은 조사원에게는 각각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였다.

연구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설명하고, 참여를 수락한 대상자는 서면으로 연구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한 참여자는 458명이었으나 그 자료 중에서 한 개 이상의 척도에 무응답 했거나, 전체 설문 중 무응답 문항이 10개 이상이었던 16명의 자료를 제거하였다. 또한 만 나이가 40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이거나 나이를 답하지 않은 32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41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노화불안

노화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Lasher 등(1993)이 개발하고 김옥(2011)이 번안, 타당화한 AAS(The anxiety about aging Scale)를 사용하였다. AAS는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는 것으로 각 5개의 문항을 가진 네 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차원은 '노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는 노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편안함과 만족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문항의 예는 "나는 노인과 함께 있는 것이 매우 편안하다" 등이다. 두 번째는 '심리적 불안정' 차원으로 일반적으로 노화와 관련된 심리적 과제 혹은 변화를 평가한다. 문항의 예는 "나는 늙은 후에도 삶이 만족스러울 것으로 생각한다" 등이다. 세 번째 차원은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으로 나이와 관련된 신체와 외모의 변화에 대한 불안을 측정한다. 문항의 예는 "나는 나이가 들어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는 일이 괴로울 것 같다" 등이다. 마지막은 '상실의 공포' 차원으로 노년기에 우정, 건강, 능력, 타인으로부터 받는 존경, 인생의 의미 등을 상실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을 측정한다. 문항의 예는 "내가 아주 늙어서 내 대신 다른 사람이 내 일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등이다.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자주 그렇다) 사이에서 자신이 느끼는 정도를 표시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차원의 노화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노인에 대한 두려움이 .85, 심리적 불안정은 .65,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은 .60, 상실의 공포는 .71이었으며 전체 노화불안의 Cronbach's α 는 .82였다.

성격 5요인

성격 5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IPIP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Goldberg, 1999)를 유태용, 이기범과 Ashton(200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IPIP는 개인의 성격을 신경증성향,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의 5가지 요인으로 측정하는데, 각 요인 당 문항은 10개로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자주 그렇다) 사이에서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표시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격특질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신경증성향이 .81, 외향성은 .77,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74, 우호성은 .75, 성실성은 .75였다.

생성감

중년기 생성감을 측정하기 위해 McAdams 등(1992)이 개발한 생성감 척도(Loyola Generativity Scale, LGS)를 오경석(200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LGS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생성감 척도로(Schoklitsch, & Baumann, 2012),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는 “내가 죽은 후에도 남길만한 일을 아무 것도 하지 못한 것 같다”, “나는 내 생애동안 다양한 사람, 집단, 그리고 활동에 헌신을 하였다” 등이다.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자주 그렇다) 사이에서 자신이 해당되는 정도에 표시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성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생성감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86이었다.

인구 통계학적 변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지각된 건강상태, 지각된 경제상태, 월 평균 소득, 자녀수, 결혼상태, 동거형태, 직업 유무를 측정하였다. 이 중 지각된 건강상태는 Speake, Cowart와 Pellet(1989)가 개발한 도구를 황미혜(2000)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 건강상태, 과거 건강상태와의 비교, 다른 사람의 건강상태와의 비교를 묻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1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자주 그렇다) 사이에서 자신이 해당되는 정도에 표시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84였다.

결 과

성격 5요인, 생성감, 노화불안 간 상관

성격 5요인, 생성감, 노화불안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화불안의 첫 번째 차원인 노인에 대한 두려움은 심리적 불안정,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심리적 불안정, $r=.275$;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 $r=.224$), 상실의 공포와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심리적 불안정은 노화불안의 나머지 모든 차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인에 대한 두려움, $r=.275$;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 $r=.553$; 상실의 공포, $r=.454$).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도 나머지 모든 차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노인에 대한 두려움, $r=.224$; 심리적 불안

표 2. 관련 변인들 간 상관 및 평균, 표준편차, 내적 합치도

	차원1	차원2	차원3	차원4	전체	N	E	O	A	C	G
차원1	1										
차원2	.275***	1									
차원3	.224***	.553***	1								
차원4	-.052	.454***	.470***	1							
전체	.535***	.796***	.793***	.676***	1						
N	.053	.412***	.336***	.459***	.447***	1					
E	-.200***	-.267***	-.058	-.123*	-.232***	-.203***	1				
O	-.072	-.368***	-.144**	-.164*	-.260***	-.207***	.357***	1			
A	-.287***	-.314***	-.140**	-.126*	-.309***	-.232***	.420***	.363***	1		
C	-.135**	-.386***	-.277***	-.226***	-.361***	-.378***	.306***	.333***	.434***	1	
G	-.247***	-.532***	-.276***	-.302***	-.480***	-.311***	.414	.524***	.388***	.323***	1
M	3.04	2.70	2.80	2.90	2.86	2.79	3.14	3.21	3.32	3.46	3.17
SD	.56	.47	.50	.56	.36	.50	.43	.39	.39	.43	.39
a	.85	.65	.60	.71	.82	.81	.77	.74	.75	.75	.86

차원 1: 노인에 대한 두려움, 차원 2: 심리적 불안정, 차원 3: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 차원 4: 상실의 공포, 전체: 노화불안 전체 점수, N: 신경증 성향, E: 외향성, O: 경험에 대한 개방성, A: 우호성, C: 성실성, G: 생성감

* $p < .05$, ** $p < .01$, *** $p < .001$

정, $r=.553$; 상실의 공포, $r=.470$), 상실의 공포는 노인에 대한 두려움 차원을 제외한 심리적 불안정,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과 관련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심리적 불안정, $r=.454$;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 $r=.470$).

신경증성향,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은 노화불안의 전체 점수와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는데(신경증성향, $r=.447$; 외향성, $r=-.232$; 경험에 대한 개방성, $r=-.260$; 우호성, $r=-.309$; 성실성, $r=-.361$), 신경증성향이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높았고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이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성감은 노화불안의 각 하위차원 및

전체 노화불안 점수 모두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노인에 대한 두려움, $r=-.247$; 심리적 불안정, $r=-.532$;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 $r=-.276$; 상실의 공포, $r=-.302$; 노화불안 전체, $r=-.480$). 이는 생성감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불안 점수가 낮음을 의미한다. 성격 5요인, 생성감 및 노화불안 간 상관계수 및 평균, 표준편차, 내적 합치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인구학적 변인, 성격 5요인, 생성감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성격 5요인과 생성감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는데, 전체 노화불안 점수 및 노화불안의 하위차원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인구학적 변인으로 연령, 건강수준, 경제수준과 더미변인 처리한 성별과 학력¹⁾을 투입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성격 5요인을, 마지막 단계에서는 생성감을 투입하였다.

노인에 대한 두려움 차원의 경우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모델 2의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R^2 Change = .189, $p < .001$), 인구학적 변인과 성격 5요인을 통제한 모델 3의 설명력의 증가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R^2 Change = .031, $p < .01$). 최종 모델 3에서 노인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성별, 개방성, 우호성, 생성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표준화회귀계수를 비교해봤을 때, 노인에 대한 두려움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그 중요도는 우호성, 생성감, 개방성, 성별의 순이었다. 이는 우호성이 낮을수록, 생성감이 낮을수록, 개방성이 클수록, 그리고 여성일수록 노인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모델 3에서 이 변인들이 노인에 대한 두려움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는 15.1%였다. 노인에 대한 두려움 차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심리적 불안정 차원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델 1, 모델 2, 모델 3이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모델 2에서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R^2 Change = .183, $p < .001$), 인구학적 변인과 성격 5요인을 통제한 모델 3의 설명력의 증가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R^2 Change = .078, $p <$

.001). 최종 모델 3은 심리적 불안정 변량의 40.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을 주는 변인은 건강, 신경증 성향, 성실성, 생성감이었다. 또한 각 변인의 표준화회귀계수를 비교해봤을 때, 심리적 불안정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의 크기는 생성감, 신경증성향, 성실성, 건강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생성감이 높을수록, 신경증 성향이 낮을수록, 성실성이 높을수록, 건강을 좋다고 지각할수록, 심리적 불안정 차원의 점수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심리적 불안정 차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 차원에서도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모델 2의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R^2 Change = .119, $p < .001$), 인구학적 변인과 성격 5요인을 통제한 모델 3의 설명력 증가도 유의미하였다(R^2 Change = .027, $p < .001$). 최종 모델 3은 노화불안 변량의 18.9%를 설명하였으며 변인들 중 신경증성향, 성실성, 생성감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회귀계수의 크기는 신경증성향, 생성감, 성실성의 순이었는데, 신경증성향이 낮고 성실성과 생성감이 높을수록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음을 의미한다.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상실의 공포 차원에서도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모델 2의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R^2 Change = .163, $p < .001$), 인구학적 변인과 성격 5요인을 통제한 모델 3의 설명력 증가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R^2 Change = .028, $p < .001$). 최종 모델 3은 26.6%의 설명력을 가졌으며 건강, 신경증성향과 생성감이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표준화회귀계수의 크기는 신경증성향, 생성감, 건강

1) 학력의 경우, 분석과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고졸 이하(40.7%)와 대졸이상(58.1%)의 두 집단으로 범주화하였다.

표 3. 노인에 대한 두려움 차원의 위계적 회귀분석

		Model 1		Model 2		Model 3	
		B	t	B	t	B	t
인구학적 변인	연령	-.011	-.217	-.013	-.249	-.003	-.056
	성별	.136	2.657**	.165	3.291**	.162	3.279**
	건강	-.102	-1.971*	-.0452	-.962	-.052	-.981
	경제	.005	.105	.001	.021	.009	.193
	학력	.039	.7555	.030	.601	.070	1.388
성격특질	신경증성향			-.048	-.891	-.081	-1.498
	외향성			-.100	-1.826	-.055	-.983
	개방성			.090	1.615	.165	2.832**
	우호성			-.274	-4.777***	-.248	-4.358***
	성실성			-.017	-.292	-.010	-.183
생성감						-.229	-3.772***
F		2.515*		5.295***		6.270***	
R2		.031		.120		.151	
R2 Change				.189***		.031***	

주. VIF 10 이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심리적 불안정 차원의 위계적 회귀분석

		Model 1		Model 2		Model 3	
		B	t	B	t	B	t
인구학적 변인	연령	-.002	-.041	.031	.707	.046	1.122
	성별	-.035	-.732	-.063	-1.440	-.068	-1.655
	건강	-.327	-6.728	-.146	-3.091**	-.146	-3.287**
	경제	-.089	-1.829	-.080	-1.840	-.067	-1.626
	학력	-.066	-1.0379	-.029	-.669	.034	.5796
성격특질	신경증성향			.235	4.983***	.184	4.085***
	외향성			-.047	-.978	.026	.549
	개방성			-.176	-3.613***	-.057	-1.176
	우호성			-.049	-.981	-.008	-.160
	성실성			-.171	-3.385**	-.161	-3.378**
생성감						-.362	-7.114***
F		13.121*		18.800***		23.872***	
R2		.143		.326		.404	
R2 Change				.183***		.078***	

주. VIF 10 이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 차원의 위계적 회귀분석

		Model 1		Model 2		Model 3	
		B	t	B	t	B	t
인구학적 변인	연령	-.038	-.749	.004	.073	.013	.260
	성별	.075	1.465	.065	1.322	.062	1.278
	건강	-.162	-3.160**	-.029	-.555	-.029	-.566
	경제	.011	.213	.012	.238	.019	.404
	학력	-.058	-1.148	-.042	-.869	-.006	-.115
성격특질	신경증성향			.266	5.047***	.236	4.486***
	외향성			.070	1.297	.112	2.067
	개방성			-.013	-.242	.056	.987
	우호성			-.017	-.306	.007	.130
	성실성			-.190	-3.384**	-.185	-3.326**
생성감						-.212	-3.566***
F		3.568**		7.537***		8.215***	
R2		.043		.162		.189	
R2 Change				.119***		.027***	

주. VIF 10 이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상실에 대한 공포 차원의 위계적 회귀분석

		Model 1		Model 2		Model 3	
		B	t	B	t	B	t
인구학적 변인	연령	.023	.457	.041	.885	.051	1.101
	성별	-.024	-.487	-.060	-1.281	-.063	-1.372
	건강	-.260	-5.156***	-.103	-2.052*	-.103	-2.091*
	경제	.051	.998	.063	1.352	.071	1.551
	학력	-.072	-1.450	-.061	-1.303	-.023	-.488
성격특질	신경증성향			.411	8.181***	.380	7.601***
	외향성			-.014	-.282	.029	.567
	개방성			-.036	-.698	.035	.651
	우호성			.045	.843	.070	1.326
	성실성			-.059	-1.099	-.053	-1.002
생성감						-.218	-3.860***
F		6.453***		12.166***		12.809***	
R2		.076		.238		.266	
R2 Change				.163***		.028***	

주. VIF 10 이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 $p < .05$, *** $p < .001$

표 7. 전체 노화불안의 위계적 회귀분석

		Model 1		Model 2		Model 3	
		<i>B</i>	<i>t</i>	<i>B</i>	<i>t</i>	<i>B</i>	<i>t</i>
인구학적 변인	연령	-.009	-.192	.022	.493	.038	.883
	성별	.058	1.174	.043	.950	.037	.882
	건강	-.301	-6.070***	-.117	-2.406*	-.117	-2.553*
	경제	-.004	-.073	.002	.054	.016	.374
	학력2	-.055	-1.118	-.036	-.804	.027	.618
	신경증성향			.307	6.337***	.256	5.514***
	외향성			-.036	-.722	.037	.774
성격특질	개방성			-.041	-.811	.078	1.559
	우호성			-.110	-2.135*	-.068	-1.392
	성실성			-.150	-2.901**	-.140	-2.861**
	생성감					-.363	-6.927***
<i>F</i>		9.478***		15.796***		20.456***	
<i>R</i> ²		.107		.289		.367	
<i>R</i> ² Change				.181***		.078***	

주. VIF 10 이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p* < .05, *p* < .01, ****p* < .001

의 순이었다. 즉 신경증성향이 낮고 생성감이 높고, 지각된 건강이 좋을수록 상실의 공포가 낮음을 의미한다. 상실의 공포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전체 노화불안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모델 2의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R*² Change = .181, *p* < .001), 인구학적 변인과 성격 5요인을 통제한 모델 3의 설명력 증가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R*² Change = .078, *p* < .001). 최종 모델 3은 36.7%의 설명력을 가졌으며 건강, 신경증성향, 성실성과 생성감이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영향력

의 크기는 생성감, 신경증성향, 성실성, 건강의 순이었다. 즉 생성감이 높고 신경증성향이 낮으며 성실성이 높고 건강이 좋다고 지각할수록 노화불안이 낮았다. 전체 노화불안 전체 점수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기질적인 성격 5요인과 발달적 성격 구성개념인 생성감이 중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지표의 하나

인 노화불안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통계적으로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라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 5요인과 생성감은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하고도 중년기 노화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변인들보다는 성격 변인, 즉 5요인 성격특질과 생성감이 노화불안을 예측하는 더 강력한 변인이며 상대적으로 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은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노인에 대한 두려움 차원의 경우 성별의 영향력을, 심리적 불안정과 상실에 대한 공포 차원에서는 건강의 영향력을 확인하였지만, 선행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취급되었던 경제적 수준과 교육수준인 학력은 노화불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4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수입, 인종, 성별은 노화불안과 관련이 없다는 Lynch(2000)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중년기 성인들의 노화불안은 인구학적 변인보다는 다른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건강은 심리적 불안정과 전체 노화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러 가지 인구학적 요인들 중 노화불안과 가장 강한 관련성을 갖는 것은 건강으로, 더 나은 건강은 노화에 대한 걱정을 낮춘다(Hurd, 2001; Klemmack & Roff, 1984; Lynch, 2000)는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성격 5요인 특질과 생성감 중 생성감이 노화불안의 네 개 하위차원 및 전체 노화불안 점수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었다. 생성감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하도록 만드는 핵심요인이며(홍은진, 2010), 자

신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낙관적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만든다(오경석, 2001). Peterson(2002)의 연구에서도 생성감이 높은 중년은 자신이 세대 간 네트워크에 포함된 것으로 느끼고 자신이 세대 순환의 일부임을 자각하고 있으며 노화에 대한 편안함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은 왜 생성감이 높은 사람이 노화불안이나 두려움을 덜 경험하는지를 설명해준다. Harris 등(2003)과 Gao(2009)는 5요인 성격과 노화불안의 상관성이 유의미하나 관련성이 크지 않은 것은 노화불안을 결정하는 다른 핵심적 요소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는 생성감이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셋째, 성격 5요인 중 신경증성향은 노인에 대한 두려움 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원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성격 5요인의 고유한 설명력은 크지 않았는데, Harris 등(2003), Gao(2009), 장휘숙(2012)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Harris 등(2003)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성격 5요인 중에서는 신경증성향의 영향력이 가장 컸는데 심리적 불안정,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 상실에 대한 공포 차원에 대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신경증성향이 불안, 우울, 분노, 적대감, 취약한 느낌, 자의식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성에 대한 평가(Costa, McCrae, 1986)임을 생각해볼 때 이러한 결과는 이해가능하다. 또한 신경증 성향과 노화불안의 관계는 신경증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인지적, 정서적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신경증 성향은 모든 종류의 불안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Bienvenu & Stein, 2003), 전반적인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다. 또한 신경증

성향은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높은 신경증 성향의 사람은 부정적 정서를 회복하려는 조절 전략을 덜 사용하며 (Ng & Diener, 2009),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Kokkonen et al., 2001). 이러한 기제를 거쳐 신경증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노화불안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는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 차원에서 성별의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신체 특히 외모에 대한 노화불안의 경우 여성이 더 높다는 주장(Gao, 2012)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민희(2013)의 연구에서 신체/외모에 대한 차원에서만 성별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인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아마도 본 연구 참여자가 40-65세의 중년기 성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이든 여성들은 노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외모 감퇴에 대해 젊은 여성들보다 걱정을 덜 하며 (Gibson, 1996), 나이든 여성들이 비록 젊음을 부정하진 않지만 신체적 외관을 덜 중시하는 쪽으로 미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내는 주장(Hurd, 2001)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해석 가능하다.

두 번째 흥미로운 결과는 개방성이 노인에 대한 두려움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즉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핵심은 새로운 것에 대한 만족과 애매모호함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다(McCrae, 2007; McCrae et al., 1997). 개방성이 큰 사람은 새로운 자극에 대해 보다 우호적으로 반응하고, 관습적이지 않고 틀에 박히지 않은 것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Delsing, Bogt, Engels, & Meeus, 2008).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볼 때 높은 개방성을 가진 사람들이 관습적이고 변화나 자극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지는 노인들에 대해 더 부정적이 되고 더 큰 불안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개방성의 각 하위측면과 적응 간 관련성의 패턴이 상이하기 때문일 수 있다. Garcia, Aluja, Garcia와 Cuevas(2005)의 연구에서 개방성의 각 하위 측면인 '환상', '미적 감각', '느낌', '행위', '관념', '가치'는 다른 성격 5요인과 각기 다른 관계 패턴을 보였는데, 예를 들어 '느낌'의 측면은 높은 신경증성향, 높은 정신병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침착, 정중, 진실한 사람보다 자신의 강한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은 불안하고 기분변화가 심하고 적대감을 크게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은 이처럼 개방성의 각 하위 측면이 다른 성격 요인과 상이한 관계 패턴을 보인다는 것은 연구 대상자와 연구가 이루어지는 장면에 따라서 개방성은 적응에 상이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Garcia et al., 2005). 하지만 개방성의 효과가 노인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변인 때문인지, 중년이라는 특수한 연구대상 때문인지는 추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상관분석에서는 노인에 대한 두려움과 개방성이 유의미하지 않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므로, 이것은 억제 효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다른 변수의 영향력이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던 관계가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인구학적 변인들이 통제되었을 때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억제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마도 통제된 인구학적 변인들 중 하나 이상이 개방성과 상호작용하여 노

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인구학적 변인들이 동질적인 표본을 통해 개방성의 효과를 다시 확인해본다면 이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에 대한 두려움 차원은 노화불안의 다른 차원들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을 보였으며, 예측하는 성격요인도 달랐는데 다른 차원의 경우에는 신경증성향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성격요인이었던 반면 노인에 대한 두려움은 신경증성향이 유의미한 예언 변인이 아니었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인구학적 변인, 성격 5요인과 생성감의 설명량도 노인에 대한 두려움 차원에서 가장 작았다. 심리적 불안정,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 상실에 대한 공포는 노화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개인적 불안을 평가하는 반면, 노인에 대한 두려움 문항들은 노화나 노인에 대한 불안보다는 노인에 대한 느낌과 더 관련된 것이라는 Harris 등(2003)의 주장과 노인에 대한 두려움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Kalavar, 2001; Rupp, Vondanovich, & Crede, 2005)는 주장으로 미루어볼 때 노인에 대한 두려움 차원이 노화불안의 나머지 차원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해 중년기는 인간발달의 시기 중 그 어느 시기보다도 길어지고 중요해졌으므로, 중년기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노년기 삶의 모습과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한경혜, 노영주, 2000). 본 연구는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노화진입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인 노화불안(조진희, 2013)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노화불안을 감소시키는 중재전략 마련에 도움을 주

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중년기 성인들이 노화과정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성공적인 노화를 맞이하도록 돕는 노년준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노화불안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인구학적 변인보다는 기질적인 성격 5요인이 더 중요하며 또한 성격 5요인보다는 중년기 생성감이 노화불안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중년기 노화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생성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Keyes 등(1998)에 의하면 생성감은 교육에 의해 발달될 수 있는데 특히 네트워크와 관계 맺기(Hart, McAdams, Hirsch, & Bauer, 2001), 양육 경험(Kotre, 1984; McAdams & Logan, 2004), 자원봉사나 사회참여 등의 이타적 행동 등을 통해 생성감이 획득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결과는 생성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 행동개입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기술하고 미래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겠다. 첫째, 본 연구에서 측정된 생성감은 성격으로서의 생성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의 정도나 실제 생성감이 표현된 것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선행연구에서 자기보고된 생성감은 다른 사람이나 관찰자가 평정한 생성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으므로(Peterson, 2002), 성격으로서의 생성감은 실제 생성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생성적 행동을 측정하거나 혹은 다른 자기보고형의 생성감 척도를 사용하여 이 결과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Erikson의 생성감 이론

을 발전시킨 Kotre(1984)는 생성감이 개인적 생성감과 공동체적 생성감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인적 생성감은 생성감을 발휘하는 대상이 '확장된 자기'로 삶의 관심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으며, 죽은 후에까지 자신이 기억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 반면 공동체적 생성감은 타인과 더 넓은 외부 대상에 대한 생성감으로 개인의 사욕을 벗어나 후세대에게 관심의 초점을 돌리는 것이다. Kotre는 이후 연구에서 생성감의 네 가지 구분되는 형태를 제안하면서 생성감을 중년기 과제로 생각한 Erikson(1964)과는 달리 생성감의 형태에 따라 발현 시기가 다르다고 보았다(Kotre, 1992). 이러한 생성감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후속 연구에서는 생성감의 유형을 구분하여 노화불안을 포함한 중년기 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성격 특질의 차원은 단일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각각의 성격특질은 상황적, 발달적 적응 요구들에 의해 일어나는 다양한 요소를 가진다(Costanzo, 2014). 예를 들어 성실성의 근면 요소는 성취 대처와 직업 맥락의 발달시기 동안 중요하지만, 계획성과 질서성 요소는 다른 발달 단계에서 중요하다. 또한 상이한 스트레스원은 성격 특질 내의 상이한 요소들의 민감성을 유발할 수 있다(Schneider, 2004). 따라서 이후에는 노화 적응과 관련한 다양한 자극 즉 다양한 유형의 스트레스원을 활용하여 성격특질의 하위 요소 단위의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신경증 성향의 어떤 구체적 요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노화불안 및 노화관련 적응에 영향을 주는지를 밝혀낸다면 스트레스 취약성에서 성격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생성감이 외향

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과 정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신경증성향과는 부적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Bradley & Marcia, 1998; Cox, Wilt, Olson, & McAdams, 2010; Peterson, Smirles, & Wentworth, 1997; Van Hiel, Mervielde & Fruyt, 2006). 생성감과 성격 5요인 간의 이러한 관련성으로 볼 때, 이들 성격변인들과 생성감이 상호작용하여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과 노화불안의 관계에서 생성감의 매개효과 혹은 생성감과 노화불안의 관계에서 특정 성격 특질의 조절효과 등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밝혀내어 젊은 성인기에서부터 노화과정에 대해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고 불안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성격 5요인과 생성감이 노화불안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지만, 추가적인 변인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처 양식, 자기 효능감, 정체감과 같은 심리적 변인(Lasher et al., 1993; Watkins, Coates, & Ferroni, 1998)을 포함한다면 노화불안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해자 (2012). 노인돌봄에 대한 여성주의적 시각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지원학회지, 7(1), 131-151.
- 김민희 (2013). 노인접촉,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죽음불안이 대학생의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 19(3), 435-456.
- 김숙남, 최순옥, 신경일, 이정희 (2008). 노화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7(3), 292-301.
- 김순이, 이정인 (2007).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14(1), 103-109.
- 김애순 (1993). 중년기 위기감 (2): 회고적 청년기의 정체감 발달상태에 따른 중년기 위기감 수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1), 75-84.
- 김 옥 (2011). 대학생의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6(1), 27-56.
- 박일경, 이상민, 최보영, Yuanying Jin, 이자영 (2010). 5요인 성격특성과 학업 소진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81-93.
- 보건복지부 (2012). <http://www.mw.go.kr>.
- 서순림, 최희정 (2013).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과 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지*, 25(4), 464-472.
- 안정신 (2005). 중노년기 미국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전 생애 발달과정의 부모자녀관계와 생산감 발달의 영향. *한국노년학*, 25(2), 245-266.
- 오경석 (2001). 청년, 중년, 노년의 생성감. *한국노년학*, 21(1), 59-71.
- 오경석 (2002). 노인의 생성감과 인생이야기. *한국노년학*, 22(2), 113-129.
- 유대용, 이기범, Ashton, M. (2004).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구성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61-75.
- 이은희, 김금운, 한규석, 주리에 (2004). 노인의 안녕감에 미치는 생성감의 역할. *한국노년학*, 24(3), 131-152.
- 이혜련 (2013). 중년남성의 생성감이 삶의 만족도 및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 익 (2012).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생성감과 노화불안. *한서대학교대학원 노인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 (2007). 중년성인과 노인의 SOC 전략과 생활만족: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1), 131-144.
- 장휘숙 (2012). 대학생과 노인의 노화불안과 특성불안 및 5요인 성격특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1), 1-18.
- 조진희 (2013).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순옥, 김숙남, 신경일, 이정희 (2008). 일부지역 성인의 노후불안. *한국노년학* 28(1), 19-32.
- 한경혜, 노영주 (2000). 50대 중년 여성의 모성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1), 1-22.
- 황미혜 (2000). 노인들이 지각한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와 간호역량. *경북대학교 간호과학연구지*, 4(1), 43-58.
- 홍금희 (2014). 중년기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요소 및 노후준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은진 (2010). 장·노년기 지원활동 유형과 생성감과 관계: 연립방정식모형의 활동. *한국노년학*, 30(2), 515-534.
- Ackerman, S., Zuroff, D., & Moscovitz, D. (2000). Generativity in midlife and young adults: Links to agency, communion, and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 Development*, 50(1), 17-41.
- Barrett, A., & Robbins, C. (2008). The multiple sources of women's aging anxiety and their relationship with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20(1), 32-65.
- Bienvenu, O., & Stein, M. (2003). Personality and anxiety disorders: A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7(2), 139-151
- Bosworth. H., Bastian, L., Rimer, B., & Siegler, I. (2003). Coping styles and personality domains related to menopausal stress. *Womens's Health Issues*, 13(1), 32-38.
- Bradley, C., & Marcia, J. (1998). Generativity-stagnation: A five-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66(1), 39-64.
- Bryant, F. (2003). Savoring Beliefs Inventory: A scale for measuring beliefs about savoring. *Journal of Mental Health*, 12, 175-196.
- Canada, B., Stephan, Y., Caudroit, J., & Jaconelli, A. (2013). Personality and subjective age among older adults: the mediating role of age-group identification. *Aging and Mental Health*, 17(8), 1037-1043.
- Caspi, A. (1998). Personality development across the life course. I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Damon, W. & Eisenberg, N. New York; Wiley, 311-388.
- Caspi, A., Elder, G., & Bem, D. (1987). Moving against the world: Life-course patterns of explosiv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3(2), 303-313.
- Costa, P., & McCrae, R. (1986). Cross-sectional studies of personality in a national sample: I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urvey measures. *Psychology and Aging*, 1(2), 140-143.
- Costa, P., & McCrae, R. (1992). Normal personality assessment in clinical practice: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4(1), 5-13.
- Costa, P., McCrae, R., & Arenberg, D. (1980). Enduring dispositions in adult m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5), 793-800.
- Costanzo, P. (2014). Conscientiousness in Life Course Context: A Commentary. *Developmental Psychology*, 50(5), 1460-1464.
- Cox, K., Wilt, J., Olson, B., & McAdams, D. (2010). Generativity, the Big Five, and psychosocial adaptation in midlife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78(4), 1185-1200.
- Cummings, S., Kropf, N., & DeWeaver, K. (2000).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 aging among non-elders. *Journal of Women and Aging* 12(1), 77-91.
- Delsing, M., Bogt, T., Engels, R., & Meeus, W. (2008). Adolescents' music preference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2(2), 109-130.
- DeNeve, K., & Cooper, H. (1998). The happy personality: A meta-analysis of 137 personality traits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24(2), 197-229.
- De St. Aubin, E., & McAdams, D. (1995). The relations of generative concern and generative action to personality traits, satisfaction/happiness with life, and ego development.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2(2), 99-112.
- Doka, K. (1986). Adolescent attitudes and beliefs toward aging and the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2(3), 173-186.

- Eglit, H. (2004). Elders on trial: Age and ageism in the American legal system. Gainesville, FL: Florida University Press.
- Erikson, E. (1964). *Insight and responsibility*. New York: Norton.
- Fisher, B. (1995). Successful aging, life satisfaction and generativity in later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1(3), 239-250.
- Flint, A., & Rifat, S. (2002).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variables and symptomatic anxiety in late-life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0(3), 292-296.
- Garcia, L., Aluja, A., Garcia, Ó., & Cuevas, L. (2005). Is openness to experience an independent personality dimension?.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26(3), 132-138.
- Gao, Y. (2009). Aging anxiety and personality traits among Taiwanese undergraduate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7(10), 1385-1390.
- Gibson, D. (1996). Broken down by age and gender. *Gender and Society*, 10(4), 433-448.
- Gohm, C. (2003). Mood regula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594-607.
- Goldberg, L. (1999). A broad -bandwidth, public-domain, personality inventory measuring the lower-level facets of several Five-Factor models.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7(1), 7-28.
- Harris, L., & Dollinger, S.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sonality traits and anxiety about ag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2), 187-194.
- Hart, H., McAdams, D., Hirsch, B., Bauer, J. (2001). Generativity and social involvement among African Americans and White adult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5(2), 208-230.
- Ho, S., Chan, S., Yip, Y., Cheng, A., Yi, Q., & Chan, C. (1999). Menopausal symptoms and symptom clustering in Chinese women. *Maturitas*, 33(19), 219-227.
- Hurd, L. (2001). Older women's bodies and the self: The construction of identity in later life. *Canadian Review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38(4), 441-464.
- John, O. (1990). The Big Five factor taxonomy: Dimensions of personality in the natural language and in questionnaires. In L. A. Pervin (Ed.),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66-100). New York: Guilford Press.
- Kalavar, J. (2001). Examining ageism: Do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differ?. *Educational Gerontology*, 27(6), 507-513.
- Kessler, R., McGonagle, K., Swartz, M., Blazer, D., & Nelson, C. (1993). Sex and depression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I: Lifetime prevalence, chronicity and recurrenc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9(2-3), 85-96.
- Keyes, C., & Ryff, C. (1998). Generativity in adult lives: Social structure contours and quality of life consequences, In McAdams, D., & de St. Aubin, E. (Eds.), *Generativity and adult development: How and why we care for the next genera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27-264.
- Klemmack, D., & Roff, L. (1984). Fear of personal aging and subjective well-being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39(6), 756-758.

- Kokkonen, M., & Pulkkinen, L. (2001). Examination of the paths between personality, current mood, its evaluation, and emotion regula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5*, 83-104.
- Kotre, J. (1984). *Outliving the self: Generativity and the interpretation of lives*. Baltimore, MD: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Kotre, J. (1992). Generative outcome. *Journal of Aging Studies, 9*(1), 33-41.
- Kruger, A. (1994). The Midlife transition: Crisis or Chimera. *Psychological Reports, 75*(3), 1299-1305.
- Lasher, K., & Faulkender, P. (1993).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Development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7*(4), 247-259.
- Lynch, S. (2000). Measurement and prediction of aging anxiety. *Research on Aging, 22*(5), 533-558.
- McAdams, D., & de Aubin, E. (1992). A theory of generativity and its assessment through self-report, behavioral act and narrative themes in autobi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6), 1003-1015.
- McAdams, D., & de St. Aubin, E. (1998). *Generativity and adult development: How and why we care for the next genera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McAdams, D., de St. Aubin, E., & Logan, R. (1993). Generativity among young, midlife, and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8*(2), 221-230.
- McAdams, D., & Logan, R. L. (2004). What is generativity? In de ST. Aubin, E., McAdams, D., & Kim, T. C.(Eds.), *The Generative Society: Caring for Future Generation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35-55.
- McCrae, R. (2007). Aesthetic chills as a universal marker of openness to experience. *Motivation and Emotion, 31*(1), 5-11.
- McCrae, R., & Costa, P. (1986). Personality, coping, and coping effectiveness in an adult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54*(2), 385-405.
- McCrae, R., & Costa, P. (1990). *Personality in adulthood*. New York: Guilford.
- McCrae, R., & Costa, P. (1997). Personality trait structure as a human universal. *American Psychologist, 52*(5), 509-516.
- McCrae, R., & Costa, P. (2008). The five-factor theory of personality. In O. P. John, R. W. Robins, & L. A. Pervi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3rd ed.), pp. 159-180. New York: Guilford Press.
- Mirowsky, J., & Ross, C. (1992). Age and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3), 187-205.
- Neikrug, S. (2003). Worrying about a frightening old age. *Aging Mental Health, 7*(5), 326-333.
- Ng, W., & Diener, E. (2009). Personality differences in emotions: Does emotion regulation play a role?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0*(2), 100-106.
- Pervin, L. (1996). *The science of personality*. New York: Wiley.
- Peterson, B. (2002). Longitudinal analysis of midlife generativity, Intergenerational Roles, and caregiving. *Psychology and Aging, 17*(1), 161-168.

- Peterson, B. (2006). Generativity and successful parenting: An analysis of young adult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74(3), 847-869.
- Peterson, B., & Duncan, L. (2007). Midlife women's generativity and authoritarianism: Marriage, motherhood, and 10 years of aging. *Psychology and Aging*, 22(3) 411-419.
- Peterson, B., & Klohnen, E. (1995). Realization of generativity in two samples of women at midlife. *Psychology and Aging*, 10(1), 20-29.
- Peterson, B., Smirles, K., & Wentworth, P. (1997). Generativity and authoritarianism: Implications for personality, political involvement, and paren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02-1216.
- Peterson, B., & Stewart, A. (1996). Antecedents and contexts of generativity motivation in midlife. *Psychology and Aging*, 11(1), 21-33.
- Revelle, W., & Scherer, K. (2009). Personality and emotion. In D. Sander & K. Scherer (Eds.), *Oxford companion to emotion and the affective sciences* (pp.303-306),
- Roberts, B., Wood, D., & Caspi, A. (2008).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traits in adulthood. In John, O., Robins, R., & Pervin, L.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3rd ed.), pp.357-398). New York: Guilford Press.
- Ross, C., & Drentea, P. (1998). Consequences of retirement activities for distress and the sense of personal control.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9(4), 317-334.
- Rupp, D., Vodanovich, S., & Crede, M. (2005).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ageism: Construct validity and group differenc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5(3), 335-362.
- Schieman, S. (1999). Age and ange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3), 273-289.
- Schoklitsch, A., & Baumann U. (2012). Genetativity and aging: A promising future research topic?. *Journal of Aging Studies*, 26(3), 262-272.
- Schneider, T. (2004). The role of neurotic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stress respons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 795-804.
- Shewchik, R., Elliot, T., MacNair-Wemands, R., Harkins, S. (1999). Trait influences o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An evaluation of alternative framework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9, 685-704.
- Siegler, I., & Brummett, B. (2000). Associations among NEO personality assessment and well-being at midlife: Facet- level analysis. *Psychology and Aging*, 15(4), 710-714.
- Soric, I., Penezic, Z., & Buric, I. (2013). Big Five personality traits, cognitive appraisals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s predictors of achievement emotions, *Psychological Topics*, 22(2) 325-349.
- Speake, D., Cowart, M., & Pellet, K. (1989). Health perception and lifestyles of elderly.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2(2), 93-100.
- Stephan, Y., Demulier, V., Terracciano, A. (2012). Personality, self-rated health, and subjective age in a life-span sample: the moderating role of chronological age. *Psychology and Aging*, 27(4), 875-880.
- Stewart, A., & Ostrove, J. (1998). Women's

- personality in middle age: Gender, history, and midcourse corrections. *American Psychologist*, 53(11), 1185-1194.
- Stewart, A., & Ostrove, J., & Helson, R. (2001). Middle-aging in women: Patterns of personality change from the 30s to the 50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8(1), 23-37.
- Suls, J., & Martin, R. (2005). The daily life of the garden-variety neurotic: Reactivity, stressor exposure, mood spillover, and maladaptive coping. *Journal of Personality*, 73, 1485-1509.
- Tong, E., Bishop, G., Enkelmann, H., Why, Y., Diong, S., Ang, J., & Khader, M. (2006). The role of the Big Five in appraisa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3), 513-523.
- Vaillant, G. (2002). *Aging well: Surprising guides to a happier life*. Boston: Little Brown.
- Van Hiel, A., Mervielde, I., & de Fruyt, F. (2006). Stagnation and generativity: Structure, validity, and differential relationships with adaptive and maladaptive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74, 543-573.
- Watkins, R., Coates, R., & Ferroni, P. (1998).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in an elderly Australian pop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6(4), 319-332.
- Westermeyer, J. (2004). Predi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Erikson's life cycle model among young men: A 32-year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8(1), 29-48.
- Wullschleger, K., Lund, D., Caserta, M., & Wright, S. (1997). Anxiety about aging: A neglected dimension of caregivers' experience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26(3), 3-18.
- Yan, T., Silverstein, M., & Wilber, K. (2011). Does race/ethnicity affect aging anxiety in American baby boomers?. *Research on Aging*, 33(4), 361-378.

1차원고접수 : 2014. 10. 07.

수정원고접수 : 2014. 11. 25.

최종게재결정 : 2014. 12. 03.

Personality and Aging Anxiety in Midlife Adults:
The Relationship of Five Factor Personality,
Generativity and Aging Anxiety

Min Hee Kim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Soon Ok Shin

Kwangwoo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dispositional traits within the Big Five and the adult developmental construct of generativity are associated with aging anxiety in midlife adults. Four hundred and ten midlife adul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confirmed that the Big Five personality significantly predicted aging anxiety after controlling demographical variables; generativity significantly predicted aging anxiety after controlling for demographic variables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Our analysis showed that generativity was the strongest predictor for aging anxiety. Moreover, neuroticism was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among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Discussion focuses on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s to reduce aging anxiety in midlife were discussed.

Key words : midlife, Five Fator personality, generativity, aging anxiety